

# 성산 갈바리아의 성 십자가 성당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6명 중 주일미사 199명 참례 / 참례율 : 27.79%

평일미사	토 (6/21)	월 (6/23)	화 (6/24) 내촌 / 본당	수 (6/25) 본당 / 송정	목 (6/26) 송정 / 본당	금 (6/27)
	11명	9명	18명 / 23명	9명 / 13명	9명 / 26명	20명
주일미사 (6/22)	내촌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중미사	철정공소
	22명	21명	30명	26명	78명	22명

 **우리들의 정성**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주일 헌금	1,220,500	교무금	3,530,000	감사 헌금	
양성, 복지, 원로	35,000	성전건축 적립금	70,000	미래 기금	25,000

**교무금** 이종석, 유옥순, 최재길, 이하나, 이효순, 김시남, 김석기, 최동자, 윤정숙, 전지선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6명 중 주일미사 176명 참례 / 참례율 : 24.58%

평일미사	토 (6/28) 희년고유미사	월 (6/30)	화 (7/1) 내촌 / 본당	수 (7/2) 본당 / 송정	목 (7/3) 송정 / 본당	금 (7/4) 본당 / 두촌
	46명	12명	17명 / 18명	11명 / 13명	9명 / 31명	27명 / 11명
주일미사 (6/29)	토요일 저녁	아침미사	교중미사			
	26명	4명	146명			

 **우리들의 정성**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주일 헌금	1,201,000	교무금	2,280,000	감사 헌금	200,000
양성, 복지, 원로	150,000	성전건축 적립금	1,700,000	미래 기금	95,000

**교무금** 권오순, 강인식, 안남선, 류재선, 최정규, 이성희, 이원일, 김명숙, 최은희, 윤영진, 박희명, 김승례, 조성근, 박광열, 신성철, 이창형, 김윤자, 최원석, 김종광, 나철순, 김성현, 허연구, 박인옥, 이명희, 이희관, 소옥선, 신정호, 권선화, 전명호

**감사헌금** 권선화(에스텔) 200,000

**성전건축 후원** 김승옥(크리스티나) 1,000,000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삶과 발자취

한국 교회는 순교자 현양을 위하여 과거 대축일이었던 7월 5일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의 신심미사를 봉헌한다(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 총회 결정). 이에 김대건 신부의 삶과 발자취와 업적, 그 의미와 영성을 돌아본다.

### 청년 김대건

스물여섯 해. 청년 김대건이 살다간 생애는 짧았다. 보통 한 세대로 보는 30년도 그는 채 살지 못했다. 사제로 살다간 기간도 1년 1개월 남짓했다. 그런데도 김대건(안드레아, 1821~1846) 신부처럼 사랑받고, 또 공경받는 사제가 한국 교회에 또 있을까?

‘첫 조선인 사제’라는 수식이 그에게 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제로서 그가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 그 삶이 너무도 짧았기에 한국 교회에 남긴 인상은 더 강렬했을지도 모른다.

김대건 신부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그가 순교 직전에 남긴 마지막 회유문이다. 1846년 8월 29일 자로 조선 교우들에게 보내는 스물한 번째 마지막 편지다.

“세상 온갖 일이 막비주명(莫非主名)이요, 막비주상주벌(莫非主賞主罰)이라. 고로 이런 군란도 또한 천주의 허락하신 바니, 너희 감수 인내하여 위주(爲主)하고, 오직 주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라...” 짧게 풀면 “모든 게 하느님 섭리 아닌 게 없다”는 말을 김 신부는 새남터에서의 순교를 18일 앞두고서 들려준다. 하느님 뜻과 섭리에 따르는 믿음으로 그는 모든 난관,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는 ‘순명’의 영성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군란 또한 천주의 허락하신 바니, 너희 감수 인내하여 위주(爲主)하고 오직 주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라...”

그가 남기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인간 삶이 갖는 의미가 하느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또 섭리의 하느님께 대한 증거를 세상에 드러내고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께서 산 것처럼 살고자 힘쓰는 굳은 믿음이 담겨 있다.

## 김대건 신부가 남긴 서한들

김 신부의 삶과 영성을 보려면, 그가 남긴 서한을 더 살피지 않을 수 없다.

1842년 2월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프랑스 함대 에리곤호에 탑승한 이후 계속된 김대건의 조선 입국로 탐색과 3차례에 걸친 입국 과정에서의 심경을 고백하는 서한에 그런 선교 열정과 의지, 성모 신심을 엿볼 수 있다.

1839년 기해박해로 아버지 김제준(이나시오)이 참수당하고, 어머니 고우르술라는 의탁할 데 없이 구걸로 연명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그는 오직 목자 없는 양 떼와도 같은 조선 교회만 생각했다.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면서 수백 리, 수천 리를 여행했고, 끝내 조선에 입국할 때는 발걸음 소리를 줄이기 위해 엄동설한의 눈길을 맨발로 걷는 고통마저 감내했다. 입국해서도 10여 년 만에 만난 가족과의 상봉도 며칠뿐, 또다시 선교 여정에 매진했다.

하느님 자비에 힘입어 그 자비에 의탁하지 않았다면, 또 성모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터다.

특히 1845년 4월 말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를 입국시키고자 현석문(가롤로) 등 조선 교우들 11명과 함께 중국 상해로 가는 과정에서 폭풍우를 만나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김 신부의 돈독했던 성모 신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1845년 7월 23일 자 열일곱 번째 서한에 그 정황이 상세히 소개된다. “강남으로 오기 위해 배 두 척을 샀는데, 하나는 크고 또 하나는 (작은 데) 폭풍우로 바다에서 잃었습니다. 강남으로 오는 데 근 한 달이 걸렸고, 두 번 폭풍우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강남 근방 바다에 있을 때 해적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정 성모 마리아의 보호로 감히 우리를 약탈하지 못하였습니다...”

배의 돛과 키를 부수는 폭풍우를 만나자 김대건은 선원들에게 바다의 별이신 성모 마리아 상본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성모 신심에 의탁하면서 극복해 나갔다.

간난신고 끝에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입국한 중국 상해 김가항성당에서 그는 그해 8월 17일 사제품을 받는다. 첫 조선인 사제의 탄생이었다. 이처럼 힘겹게 사제가 됐지만, 김대건 신부의 조선에서의 사목은 7개월 남짓했다.

그해 8월 31일 중국을 떠나 그는 페레올 주교와 함께 라파엘호를 타고 강경 황산포에 도착한다. 1845년 10월 12일이었다. 그로부터 이듬해 5월 12일, 만주에서 조선 입국을 기다리던 매스트르 신부를 입국시키고자 서울 마포에서 출발해 백령도 부근으로 갔다가 그해 6월 초 순위도에서 체포돼 해주 감영을 거쳐 서울 포도청으로 이송되기에 이른다. 그 짧은 사목 중에 그가 남긴 서한에는 조선 교우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

그중 하나가 1845년 3월과 4월 사이에 쓴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다. “... 그러나 요즈음에는 신자들이 차차 신앙심이 불타올라 열성이 자라나고, 배교자들은 뉘우치고 회두하며, 사방에서 외교인들이 입교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천주교는 지금 찬미를 받고 신자들은 정직한 사람들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수할 것은 많은 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도록 청하여 주십시오.(마태 9,38)”

## 순교 영성

그러나 김 신부의 삶과 영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순교 영성이다. 그에게 순교란 스승이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이었고, 하느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순교 영성은 순교자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열매였다. 증조부인 김진후(비오, 1739~1814) 복자로부터 비롯돼 작은할아버지 김종한(안드레아, ?~1816) 복자, 아버지 김제준(이냐시오, 1796~1849) 성인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가풍이었던 셈이다.

그러한 김 신부의 순교 영성은 마지막 회유문에서 잘 드러난다. “내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으랴. 그러나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 비겨 더 착실한 목자를 상 주실 것이니, 부디 설워 말고 큰 사랑을 이뤄,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서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천만 바란다.”

(2020년 6월 30일, 가톨릭평화신문 기사)

## 레지오 훈화 - 올바른 레지오 마리아 신심

### 7-2. 레지오 마리아 선서문에 대한 논쟁의 경과 (2)

조규만 주교의 2015년 7월 10일 서한은 중요한 교회사적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가톨릭의 현대사에서, 레지오 마리아 선서문에 대하여 한국 지역 교회 교도권의 공식 기관에서 첫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선서문 작성의 시대적 배경을 잘 설명하면서도, 그 내용에서 흠송과 공경의 신학적 개념 구분이 모호하여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선서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제 국제적 차원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광주 세나투스 주교회의의 서한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2015년 7월 27일 아일랜드 더블린의 레지오 마리아 세계 본부, 곧 콘칠리움 레지오니스에 전달하였다. 콘칠리움 레지오니스는 2016년 3월 7일, 당시 영성 지도자인 도미니코회 비드 맥그리거 신부의 의견 서한을 첨부하여 한국 교회의 문제 제기를 반박하였다. 이에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는 2016년 8월 31일 맥그리거 신부의 주장에 대해 신학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냈으며, 콘칠리움 레지오니스는 같은 해 10월 5일 그 내용을 잘 연구하여 다시 답변을 보내겠다는 짧은 답신 이후 후속 연락이 없는 상태이다. 사실상, 주교회의의 신앙교리위원회의 반박 서한에 대한 답변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교회의의 신앙교리위원회, 올바른 레지오 마리아 신심, 40~42쪽>